

2015년 1월 19일 새벽말씀

할렐루야!

금년도는 “주와 함께 전도”가 금년도 표어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먼저 밥을 먹고 옆의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자기 먼저 경험하고 믿어보고 성경을 들어보고 옆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전도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혹시 자기가 다른 마음을 먹는가, 자기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일체 되는 생활이 약해졌는가.

자기가 철저하게 주와 하나가 딱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전도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가르쳐 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온 신입생들에게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어떻게 하는가. 알면 하니까. 어린아이라도 알면 하니까. 자기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물론 그랬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자신만만하니까. 거기에는 경제도, 생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신앙생활이 인간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역시 하늘 라에서, 신앙 안에

서 모두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만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 했을 때. 그러니 우리도 따라가야 그것이 <관리>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관리입니다! 안 따라가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됩니다.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빨리 따라 하도록 하라. 그게 자기 관리다.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전도다.” 계속 따라오면, 말씀을 들으니까 전도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 관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배도 그물도 집어던지고 따랐더라.” 했습니다. 멋있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다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바닷가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설교하려니까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서 하려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바다로 배타고 들어가서 있고, 앞을 쳐다보며 외치게 배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다녔으나 못 잡아서 허전한 가운데 그물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리자고 해서 배를 빌려주었더니만 그날 청중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베드로도 예수님을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녔다지만 예수 선생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이라고 하니까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배를 빌려주고 거기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 팔뚝 걷어 붙이고 장담해도 마음대로 안 된단니까. 다 천주의 조화가 있고, 다 뜻이 있

다.”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썼으니까.

이런 사람이 전도될 때가 되었으면 벌써 예수님의 설교부터가 달랐습니다. 나도 누구 하나가 왔으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장담하지 마라.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럴 리가 있나? 모두 뜻이 있지. 의문을 못 풀었는데 내 설교를 듣고 의문을 풀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도 모든 것을 여기 와서 교회 다니다보면 ‘아, 이러려고 그것이 안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데리고 오려고 나를 이렇게 틀었구나.’ 하고 압니다. 제일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생님을 만나고 봐야 됩니다.

“너는 뜻이 있어서 나 만나고,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알았으니까.”

“나도 조금 약간은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으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전달한다. 귀히 여기고 하늘을 우러러 영광을 돌리며 고마워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지구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사로잡으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근원자시다.”

또 하나는 섭리사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떨어졌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과거에 무엇을 하셨나, 선생님이 과거에 어떻게 대해 주었나를 보면 시험 든 것도 다시 복직합니다.

선생님부터도 어렸을 때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중에서 나를 쳐다보나? 특별히 나는 목사도 아닌데. 특별히 목사들만 쳐다보고, 특별히 헌금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은혜가 안 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은혜를 칼날같이 가슴에다 꽂습니다. 머릿속에다 불을 붙여 주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모두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나갈 때에, 확실함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것을 선생님은 보낸 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를 안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르기만 한 것입니다. 다독거리고, 기르고, 포대기에 싸서 방안에서 열심히 기르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만 길렀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조금 몰라도 이해하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모르면 정말로 부모로서 속상한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부모로 볼 때 종교들이 그래도 오래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2000살을 먹었습니다. 당세에 본인이 신앙생활하며 2000살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기독교인들이 몇 년 다니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만큼 큰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한 성서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여 바른 행실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을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치에 맞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모든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마 그날 베드로 녹이는 것을 목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수제자가 될 것을 아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경험으

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왜? 메시아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도 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고, 신중의 신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녹이는데 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되어진 사실로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배도 빌려 주고 했기에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배에 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날 수다한 무리들이 그런 입장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설교 내용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외쳤는지 특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쓰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자라도 써 놓았으면, 몇 줄이라도 분명히 써 놓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만 면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큰 집회를 했으면 면담자들이 몇 명씩은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면담을 했는데, 베드로만 면담을 했지 특별히 면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면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설교 끝나면 면담입니다. 선생님께서 각 나라 대 집회를 하면 끝난 다음에 면담을 합니다.

베드로는 면담 가운데 “나는 어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했습니다.

아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 씻을 것도 없이 일찌감치 고기만 건져내고 갔을 것인데,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만나게 되어서 배를 빌려 주었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깊은 데서 그물을 한번 던져 보아라.” 하셨습니다.

“아니, 깊은 데고 어디고 다 던져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안 잡혔습니다.”

“바다의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는 곳을 아셨든지 깊은 데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서 결국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서 배가 가라앉게 생

졌으니까 옆의 배를 불러서 “나를 좀 도와 달라.” 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또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무엇인가 느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각색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보기도 했지만, 본인들이 행한 것은 본인만 알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아마 호언장담하며 살았던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모르고 살았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개하고 돌아왔든지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 초점을 맞춘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전도되어 말씀 들었는데, 베드로만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결국 수제자가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도 이와 같이 멋있고 뜻있게 사람을 찾으면서 전도해야지, 그냥 청중이 왔다고 다 돌아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의 뜻있는 사람 때문에 청중이 모였다. 뜻있는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되었다.’ 이렇게 까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좀 기대에 어긋난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어느 때는 보면 2-30명씩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결국 한 사람 남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 금방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하나 남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 때 모든 상황은, 그 집회는 그 한두 명 때문에 한 집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 그 15명이나 되는데 다 놓쳤네. 한 명밖에 안 남다니. 아, 정말 억울하

다.’ 하지 말고 그 때는 결혼할 때 들러리로 모두 모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전도의 법칙과 이치의 흐름을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 지쳐 버립니다.

‘아, 내가 잘했으면 10명 다 오게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로 내가 미쳐.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것을, 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말씀했을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결국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초점 몇 개를 맞추었습니다. “따라가라.”는 초점도 맞추었습니다.

“따라가라. 무조건 따라가라. 의심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무조건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와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짝 따라오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다 보면 “어? 멀리서 보는 것과 달라. 신적인 것이 안 풍겨.”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바짝 따라오다가. 묻는 상태를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칼날같이, 먼도날로 굽듯이.

예수님과 멀리 있을 때는 막 우러러보더니 바짝 따라 다니면서는 예수님께 꼬치꼬치 묻고 그랬습니다. 이것 묻고 저것 묻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짝 따라오면, 아주 바짝 봐서 근본을 깨닫고 확실히 알고 갈 때 100배, 200배 더 크나큰 쇼크적인 큰 사람이 되고 크는데 영향이 좋습니다. 설불리 할 사람이 바짝 따라오면 오히려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거지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든 책망하는 것을 보니까 시험 들겠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따라가면서 계속 이것을 이해를 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는 그런 것을 나에게 안 물어보느냐? 나에게 물어보아야지. 왜 이런 것을 안 물어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묻는 것

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묻고 싶어도 겁나서 못 묻겠어요.”하는데 “그러나 하나씩 물어보아야지,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것은 이런 뜻이 있다. 궁금하면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너만 와라.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나는 별 되고 싶다.”고 해서 별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별에 가서 딱 보면 별 불일이 없습니다. 아폴로 타고 바짝 가서 보면 별 불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그런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흙덩어리이고 돌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참으로 별 불일 없다. 별을 가보면 별 불일 없다. 달도 그러하리라. 해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무 아름답고 멋있지만, 바짝 가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연구하면 더 신비성을 깨닫게 됩니다. 해가 비추어서 반사시켜서 그 빛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둔산을 보면 두 가지로 보일 것입니다. 대둔산을 아침에 보면 햇빛이 딱 때려서 하얀 빨래 널은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여인이 흰 빨래를 널어놓은 것 같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둔산이 흰 바위 덩어리네.”할 정도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짝 가보면 아닙니다. 나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바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햇빛으로 조명 받아서 딱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명 딱 때리면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발이라고 모두 그러합니다. ‘화장발, 조명발, 웃음발’ 그러합니다.

사람이 화장발도 있고, 조명발도 있고, 그리고 웃음발도 있습니다. 웃으면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어가서 일단 관이 딱 돌아오면 말씀 발이 있어서 말씀의 빛이 납니다. 그래서 지혜 받은 사람은 지혜 빛이 나고,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의 빛이 나고, 온전한 사상을 딱 가지면 얼굴에 또 빛이 납니다. 그러나 이상하니 사고가 다른 데로 돌아갔으면 빛이 안 나고 어두워집니다.

관이 돌아가면 얼굴로 금방 압니다. 여러분도 화장발이 안 되면 웃음발이라도 하십시오. 나는 웃음발이 참 좋습니다. 웃으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스마일 운동을 해서 “웃자. 웃자.” 합니다.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나 하면, “따르라.” 했습니다.

“자기가 따르면 자기가 관리된다.”

자기관리 좀 하면서 남도 관리해야지, 남 관리만 계속 하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관리를 하면서 하지, 왜 나만 자꾸 이야기하지? 아 이고, 모순이다. 모순.” 그러니까. 그러니 자기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잘하나 못하나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자기를 관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은 옆에다 사람을 세워 놓습니다. 혹시 무엇을 잘못하나, 뭐하나 자꾸 속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잘하나 못하나 잘 모릅니다. 발음 같은 것도 잘 모릅니다. 말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도 조리 있게 천천히 확실하게 또박또박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어떤 필기체로 막 굵어서 상대가 몰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정자로 써서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도 글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췌췌거리며 찌꺼분하게 합니다. 글 쓸 때 찌꺼분하게 씁니다.

그것을 “찌꺼분하다.”고 그냥 표현하는데, 꺾꺾꺾하게 글을 씁니다.

한번 자기가 글 쓰면서, 필기하면서 누구를 보고 말했는가 보십시오. 꺾꺾꺾하게 필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끝췌췌 필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박또박 필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쓰려고 다 잡아 쓰는 사람이 있어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자같이 한참 듣다가 한 자나 몇 자를 딱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잠언 식으로 자기 생각에 딱 들어온 것만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은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석막교회에서 나만 그렇게 필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계속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와서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쓰냐? 쳐다보고 듣지, 무엇을 그렇게 쓰고 있냐?”

“다 쓰고, 귀한 것은 집에 가서 또 읽어본다.” 했는데, 그 쓰는 것을 별로 칭찬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하는 자와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

다.” 했습니다. 그렇게 쓰니까 정말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글 쓰는 데 여러 가지로 다 영향이 컸습니다.

그와 같이 글을 쓰듯이 선생님은 합니다. 선생님 글이 다른 사람보다 멋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멋들어지게 글을 씁니다. 여기 가끔 써서 붙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붙여 놓으면 멋들어지게 씁니다. 지금은 한 번에 그렇게 멋들어지게 씁니다. 척척 씁니다.

그림도 멋들어지게 거침없이 그립니다.

말씀도 거침없이 합니다.

오늘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설교할 때 글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컴퓨터로 때리고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한 것을 다 쓸 수도 없습니다. 핵심만 쓰되, 너무 간략하게 써도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면 모릅니다. 최대한 쓰되, 최하 70%는 써야 됩니다. 나머지 30%는 쳐내고 쓴다고 해도.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녹음을 하면 최고입니다. 녹음을 해 놓으면 다 들어오니까. 녹화를 해버리면 세밀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계속 다릅니다. 집을 지을 때 매일 그 일이 그 일 같아도 조금씩 계속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데 대해서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수도 생활이 됩니다. 자기 성격, 자기 행동을 매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 쓸 때는 너무 잔잔하게 조그맣게 쓰지 말고, 적어도 선생님 제자라면 글씨도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의 하나라도 따라야 됩니다. 정자로 쓰는 것을 하든지, 거의 다 쓰는 것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필기체를 따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듯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게 만들었구나.’합니다. 나는 그 때 교역자가 “무엇을 그렇게 받아쥔냐?” 했었습니다. 그 때는 어렸기 때문에 수준도 낮았습니다. 그때 내 나름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령을 말씀하며, 그를 말씀할 때 자기에게 더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더라.”

“내가, 자기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새벽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듣고 그대로 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했나에 대해서, 베드로를 전도한 상황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도 모두 그러함을 깨닫고 느끼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했어도 잘 못 깨달으니 이들 옆에서 들은 자들이 더욱 깨우쳐 주고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적고, 열심히 적으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적지 말고 붓으로 적어라. 머리로도 적어야 되지만, 가다보면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안 잊어버리는데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을 놓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가다보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저장된 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 남기면 저장한 것이 남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역사를 글로, 책으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내가 이들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지켜 행함이 충만키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빠이빠이! 안녕!